

중세 유럽의 생활미술과 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 순 흥

目 次

I. 서 론	IV. 생활미술에 나타난 복식문화
II. 이론적 배경	1. 건축물
1. 역사적 배경	2. 회화
2. 사회적 배경	3. 타피스트리
3. 미술사적 배경	4. 장식공예품
III. 생활미술과 복식문화	V. 결 론
1. 생활미술	참고문헌
2. 복식문화	ABSTRACT

I. 서 론

중세는 르네상스시대와 古代와의 사이에 끼어 있는 암흑과 야만의 중간시대로 A.D 476년부터 15세기 르네상스 이전까지의 약 천년간을 가리키나 12~13세기 전후로 나타나는 봉건사회의 화폐 경제로 인한 도시의 발달, 길드적 수공업의 성장과 무역으로 인한 상업의 변영, 군주국가의 성립 등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아 독특하고 우수한 유럽 문화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종교의 확산기로서 경제적 구조나 수공업적인 기능과 동시에 수준 높은 생활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기사도와 수도원의 출현이 서유럽의 생활 미술과 복식문화에 큰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다. 11세기말에서 13세기의 십자군 원정으로 인하여 동·서양의 문물과 풍습의 유입으로 그 영향은 경

제적, 문화적으로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이 시대의 건축미술이 복식문화에 끼친 영향도 지대하다.

즉 복식사 연구의 주 발체 자료인 그리스도교의 사원 등 건물에 나타난 복식과 회화나 벽화 또 타피스트리와 공예품 등에 나타난 복식의 유형을 살펴보고 당시의 생활미술에서 사회적 제반 현상 등을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중세 유럽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성립하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제국의 행정조직의 유산이 있었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 이 논문은 199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통일적 보편성에 힘입은 바 컸으며, 문화적으로는 古代의 문화 전통을 배경으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세 요소는 유럽 統合形成에 큰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라는 인적 요소가 역할을 다함으로써 유럽의 형성은 가능하였던 것이다.¹⁾ 이러한 서양 중세 유럽의 탄생은 몇몇 측면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를테면, 지중해적 통일성이 끝난 것, 대침입을 통해서 북서부 유럽 세계 및 대륙 유럽이 공통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것, 로마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진 것 등이다.²⁾

중세 유럽은 세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시기(4세기~10세기), 사회적 안정이 이뤄지며, 중세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 시기(11세기~13세기), 봉건제도와 농촌 경제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도시민의 사회적 세력이 증대하였던 시기(14~15세기)이다.

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서유럽의 봉건제도는 10~12세기의 유럽 전체를 특징짓는 요소가 된다. 정치체제인 동시에 경제 구조이고,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는 봉건제도는 특수한 봉사수행에 대한 보수인 封을 매개로 보호와 충성의 계약을 이루는³⁾ 제도로, 일정한 크기와 농업 인구를 가진 장원제도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중세 유럽을 농업 생산에 의존하는 자급자족의 공동체사회로 만들었다.

봉건 제도가 무르익어 가면서 중세 특유의 높은 수준의 생활을 견지하기 위하여 기사도와 수도원이 출현케 된다. 기사도는 군주에 대한 충성, 교회와 신에 대한 봉사, 부녀자 등의 허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신, 관용과 친절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였고, 수도원 또한 순결과 청빈, 순종의 기본 자세를

갖고 그리스도교적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였다.⁴⁾

11~12세기가 되면서 일용품 생산은 분업을 낳았으며, 이를 매개로 한 상인이 발생하면서 교환화폐경제가 시작되었다. 이는 서유럽에서의 수공업 상품 생산 및 상품 교환장으로서의 도시를 발생케 하였으며, 도시 영주인 봉건 귀족의 부와 권력 강화로 인한 광역경제권의 형성과 정치권력의 재편, 집중과세는 봉건사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11세기 말~13세기말의 십자군은 성지회복을 위한 원정으로 실패 하였으나, 봉건 사회 속에 양성된 서구적 에너지의 최초의 대외적 분출이었으며, 동·서 양 세계의 평화적 교섭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유럽과 성지간의 순례는 십자군시대에도 끊이지 않았으며, 서유럽 세계의 활동범위는 십자군 원정을 일대 계기로 하여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대규모로 확대되었다.⁵⁾

지방 자치도시의 형성과 신분제 의회의 출현에 의해 통일국가로 발전하게 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표면상으로는 프랑스 왕위계승의 문제였으나, 내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더해지면서 백년전쟁(1337~1453)이 발발되었다.

백년전쟁에서 활약한 용병군대는 일정 수의 사병을 거느리는 귀족과 국왕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였기 때문에 귀족과 사병들 사이에는 흔히 신봉건제(New Feudalism)라 불리는 사적 주종관계가 발생하였다.⁶⁾ 이는 왕권에 의한 국가 통일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영국에서는 랑카스터(Lancaster : 붉은 장미)家和 요크(York : 흰 장미)家の 권력 장악을 위한 장미 전쟁(1454~1485)

1)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 서울, 1978, p.149.

2) 프레데리크 들루슈 편, 윤승준 역, 새 유럽의 역사, 도서출판까치 : 서울, 1995, p.139.

3) 이영범, 유공조, 김남현, 서양문화사, 양서원 : 서울, 1991, p.56.

4) 상계서, pp.58~59.

5) 이석우, 신용철, 세계의 역사와 문화, 탐구당 : 서울, 1986, p.128.

6) 상계서, p.128.

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영국에서는 상공업이 번영하게 되었는데, 특히 헨리7세는 상공업의 장려, 시민세력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왕실 재정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교회 권력 또한 억압하면서 절대왕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 제국의 봉건국가에서 왕권이 강화된 절대국가로의 발전은 근대적인 국민국가로의 면모를 갖추게 한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배경

1) 봉건제도

고대 사회의 급격한 해체의 소산인 봉건제도는 사람들간의 상호 의존관계로서 사회계층을 만들어 지배 계층인 귀족 계급 내에서 성립되는 권리, 의무 관계를 분명하게 제도화시키며, 부동산권의 분할에 따르는 토지 권리는 군사적인 의무를 함께 요구하며, 또한 封土의 수수에 따른 군주와 종신의 관계가 성립되고,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공권이 최상위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서 분산되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수많은 지방 귀족에 의해서 정치적 기능이 행사되었던 이 제도는 농촌을 일정한 크기와 농업 인구를 가진 장원(Manor)으로 만들었으며, 집단농경 방법으로 자급자족의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면서 지연적인 경제질서를 만들었다.

봉토의 수수와 군사적 의무로 이루어진 기사들은 12~13세기에 그들의 생활 이념이나 명예관념을 하나의 도의적 규범으로 확립시켜 기사도(chivalry)를 형성하였다는데,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무장시키는 게르만의 부족적 관습과 그리스도에 입각한 종교적·윤리적 이념, 詩와 紋章에 관한 사라센적 관념 등에 그 기원⁷⁾을 둘 수 있다.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고, 관용과 친절을 베풀고, 부녀자를 존중하는 등의 기사도 정신은 중세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고, 특히 복식문화에 있어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십자군 운동

십자군이란 성지와 그 주변지역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탈취 보존할 목적으로 일으킨 군사식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⁸⁾ 성지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에 대한 이슬람의 박해가 근원이었던 십자군은 성지에 대한 존중과 성지 순례에 대한 사랑, 종교적 열정이 감정적인 요인이 되어 표출되었던 것이다. 교황·서유럽 제후들은 '성전'의 이름아래 각각 다른 의도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교황은 동 서양 교회를 통일하여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으며, 서유럽 제후는 점령지를 식민지화하거나 동방으로부터의 갖가지 재물과 전리품으로 부와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특히, 신흥 북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상선으로 교역을 통하면서 경제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베네치아·피사·제노아 등이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십자군의 힘을 빌어·시리아·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 항구를 점령하여 동방무역상의 거점으로 함과 동시에 귀국시에는 향료·보석·상아·견직물 기타 오리엔트의 물자를 적재하여 거대한 이윤을 얻었고 오리엔트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였다.⁹⁾

십자군은 성지를 회복하지도 그리스도교의 통합도 이루지 못하였으나, 원정으로 인하여 아시아와 유럽간의 새로운 문화 접촉을 가능케 했으며, 근세자본주의의 발달, 시민계급의 발흥, 군주국의 세력 신장과 같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3) 도시의 발달

자유민의 증가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상업의 부활은 상공업의 발달과 관련되면서 교통 중심

7) 차하순, 전게서, p.174.

8) 상계서, p.69.

9) 이석우, 신용철, 전게서, p.129.

지에 도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고대 로마시대의 도시와 지방 귀족의 성곽 또는 요새를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는 상업에 따른 번창과 도시 인구의 급증으로 새로운 사회 계층을 출현시켰으며, 중세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도시의 발생은 봉건사회에서의 화폐교환 경제의 발전단계로 수공업 상품의 생산과 교환의 場으로서 지방적인 상품경제 사회를 형성하였다.

상공업의 안정과 자유를 지켜야 할 도시영주인 봉건 귀족은 도시나 상인으로부터 무리한 세금징수를 통한 재력과 권력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도시 시민들의 투쟁은 13세기에 극에 달하였다. 투쟁 세력이었던 길드(guild)의 상인들은 수공업자와 하층민의 지지를 받아 도시에서의 특권과 자유를 얻게되었고, 하나의 도시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도시민의 이익 또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인 길드는 고용문제, 물품의 가격 및 노임의 통제, 생산과 판매에 관한 공동 규제를 목적으로 하나, 일률적인 규제에 따른 자유로운 상업의 발달을 막는 요소로서도 작용하였다. 도시 출현과 상업의 부활은 지방중심 교육을 도시중심의 교육으로 변화시켰으며, 정치적으로도 개인의 자유와 자치가 더욱 확대되고, 군주권의 신장과 국가적 통일이 또한 촉진 고양되었다.¹⁰⁾

3. 미술사적 배경

중세의 정신적 기반이면서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인 그리스도교 사상은 미술사에서도 그 성격이 지배적이었는데, 중세의 미술가들은 신앙과 敎義의 테두리 안에서 제작했던 것으로 예술적 개성은 종교적 권위의 규범과 제약 밑에서만 성립했던 것이다.¹¹⁾ 종교 미술의 표본인 중세의 미술은 미술

분야의 전반을 성당 건축이 주도하면서 회화, 조각 등의 미술부분을 종속하고 있으며, 종교 예술의 복종성에 의하여 신의 권위, 성서이야기의 내용을 관념적으로 시각화하는 표현방법과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며, 동방의 추상성, 장식성, 관념성 등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1) 비잔틴(Byzantine) 미술

비잔틴 문화는 발칸(Balkan) 및 러시아의 문화를 형성한 것인 동시에, 문화유산을 터키에도 주었다. 또, 프랑스, 독일의 로마네스크 미술, 고딕 미술과 관계되며, 계속 서방세계의 여러 문화 영역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어, 마침내 르네상스 출현에 끼친 바 많다.¹²⁾ 종교적인 신비의 성격을 띠는 비잔틴 미술은 형태보다는 현란한 색채의 효과를 이용하였는데, 웅장한 성당건축과 함께 내부의 모자이크는 종교적 주제의 문양과 생활의 풍속 등을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여 내부의 공간을 더 장엄하게 만들었다. 동양적인 圖像과 강한 장식성의 독특한 성격을 띠는 회화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금욕주의에 대한 이상주의를 구현했으며, 모자이크 벽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니어춰(miniature)라는 수사본 삽화(miniature는 세밀화라는 뜻도 있다)와 이콘(icon: 목판에 그린 성화상)이 성행하였고, 공예 또한 聖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아, 금공, 직물 등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2) 로마네스크(Romanesque) 미술

로마네스크 양식은 본래 성당 건축양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1200년경에 서유럽에 퍼졌던, 11~12세기를 대표하는 미술양식이다.

봉건시대의 최성기인 로마네스크 시대는 당시의 교회는 정신적인 안식처로서 직조, 자수, 금속

10) 이영범, 유공조, 김남현, 전개서, p.83.

11) 이영환, 증보판 서양미술사, 박영사: 서울, 1985, p.146.

12) 상계서, p.159.

세공기술의 기술도 가르쳤으며, 교회를 통한 직조나 자수의 보급은 시대의 복식 미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방 양식의 독자성을 보이는 로마네스크 미술은 성당과 수도원의 건축미술에서 잘 나타나는데, 라틴 십자형의 구조와 돔형의 둥근 아아취의 천정과 두터운 벽, 반원형의 작은 창으로 나타나는 중후한 분위기와 석판과 원기둥에 조각된 성경의 장면들이 그 특징이다. 성당의 천정과 측벽에는 엄숙한 예수상, 숭고한 성모상, 성서와 성인전을 소재로 한 설화적인 회화가 표현되었고, 미니어처가 성행하였으며, 다분히 동양적이고 추상적인 장식성으로 종교관에 의한 신비로움을 더해주었다.

3) 고딕(Gothic) 미술

13~14세기의 대표적인 고딕예술은 도시·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성장된 대학문화와 학문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며, 또한 십자군 원정으로 인한 동방으로부터의 뛰어난 기술의 제작품들이 유럽으로 들어온 것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산업적인 면의 발전을 가져오고, 휴머니즘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의 미술양식이다. 고딕양식은 프랑스에서 형성되어 영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전 유럽세계에 확산되었으며, 종교와 연결된 성당, 사원의 건축에서 먼저 나타나면서 점차 귀족의 저택, 도시의 공공건물, 공예품이나 귀부인을 위한 장신구에 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고딕 건축은 수직성의 강조·창문의 형식에서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地上의인 안정감보다는 하늘에 대한 숭배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건축의 외관을 尖塔으로 높이 세워 수직성을 강조하며, 내부 또한 천정과 창을 높이 하면서 尖頭 아아취의 형태로 하여 전체적으로 상승감을 강조하였다. 창은 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

(stained glass)로 꾸몄고, 건물 내외의 많은 조각을 장식하는 등 마치 성당 그 자체에 천국의 신비성과 장엄성이 가득차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¹³⁾ 고딕의 조각은 억제된 감정 표출에 의해 숭고함을 보여주며, 사실적, 합리적, 기능적인 장식성을 증시하여 매우 복잡한 양식을 보이는데, 특히 성당 조각에서 보이는 사실성의 강한 부각은 근대로의 진일보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Ⅲ. 생활미술과 복식문화

1. 생활미술

1) 건축물

초기 그리스도교 건축에 있어서 실내장식은 새로운 색채적 효과로 독창성있는 실내의 종교적 분위기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와같이 종교적 기분을 내는 독창적 방법으로 모자이크를 사용하였으며, 로마 시대에서는 바닥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벽면과 천장등에도 사용하였고, 聖者나 使徒들의 그림을 만든 많은 걸작들이 남아 있다.¹⁴⁾

본래 모자이크는 고대 동방의 각지에서 사용했던 것이며, 기독교 미술에서는 이 모자이크화에 새로운 생명과 정신을 불어 넣어 새 경지를 보여주는 바이다. 일체의 地上的, 寫實的 감각을 버리고, 초월적 세계의 啓示 정신적 차원의 존재를 확립하였던 것이다.¹⁵⁾

이교도 모자이크는 여러 가지 색조의 대리석을 이용한 돌파편 모자이크가 주였는데 기독교도는 색유리를 혼합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재료가 너무 비싸 시대가 지나면서 성당의 모자이크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대체되다가 프레스코화로 바뀌게 된다.¹⁶⁾

비잔틴 건축에서 특이한 것은 장식인데, 그 장

13) 동아시아미술대전집, 중세미술, 동아출판사 : 서울, 1986, p.114.

14) 尹張燮, 서양건축사, 동명사 : 서울, 1996, p.136.

15) 이영환, 서양미술사, 박영사 : 서울, 1985, p.152.

16) 유재길 역, 서양미술사, 조형사 : 서울, 1994, p.40.

식에는 동방문화와 융합하여 화려한 색채와 표면 장식을 애용하는 아시아적 경향이 많이 가미되었다. 비잔틴의 건축장식은 평면장식이며, 비잔틴건축은 평활한 면에 색채적 효과를 주로 하였다.¹⁷⁾

스테인드 글라스의 최초작품은 로마네스크 시대에 제작되었으나 건축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반원 아치 천장과 원기둥 등을 도입한 건축양식으로써 석조아치 천장의 무거운 중량을 지탱하기 위한 두꺼운 벽과 좁은 간격으로 촘촘히 세워진 들기둥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¹⁸⁾ 따라서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에서는 창을 크게 할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창의 왜소함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교회건축 공간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구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작품이라고 추정되는 ‘예수의 얼굴’을 비롯하여 프랑스 르망(Le Mans) 대성당의 ‘성모와 사도’, 생드니(St. Denis) 수도원의 ‘쉬제르 수도원장’ 등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들이 제작됨으로써 어두운 실내를 빛으로 장식하는 기능을 하였다.

또한 로마네스크 시대의 조각장식은 교회당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제단과 說教壇 및 주출입구 등에 浮彫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감각이 신선하고 건축형식과 잘 어울렸으며, 표정이 근엄하고 훌륭하며 고귀한 기품이 가득차 있다.

고딕 시대의 건축은 종교의 신성화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 미적 표현방법으로 사용된 스테인드 글라스는 건축조형의 중요한 장식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¹⁹⁾ 畫題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많이 취급하였으며, 창을 매우 길고 넓게 확대하여 외부로부터 많은 빛을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이렇게 스

테인드 글라스는 고딕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으며, 당시 사람들의 天上에 대한 승상을 표현하는 침투 아치(Point arch)를 이용하여 성당내부의 공간을 가능한 높게 강조하였으며 수직적인 기둥이 기본구조를 이루어²⁰⁾ 벽면은 감소하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킨 창이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크고 많은 창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시의 성직자나 예술가들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같은 아름답고 화려하며 신비한 회화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건축의 미적효과를 증대시켰다.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스테인드 글라스는 고딕 시대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었고 성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훈과 인물들을 주제로 하여 당시의 문맹한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성서’의 역할을 하였고, 거대한 교회 내부에 신앙의 신비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같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당시의 뛰어난 감각을 지닌 예술가들에 의하여 유리의 다양한 색소 발견과 기술적 발명이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다.

2) 회 화

비잔틴시대의 회화는 동방적 조형성의 적극적 침투에서 그의 독특한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미니어취(Miniature)와 성사적·Christ·聖者를 제단 또는 목판 등 이동할 수 있는 곳에 그런 聖畫像인 이콘(Icon)이라는 것이 있다.²¹⁾

미니어취는 비잔틴 중기에 있어서 훌륭한 작품이 제작되었으며, 화려한 궁정의 고대 부흥 취미는 파리의 詩篇과 같은 걸출한 것이 전해지고 있으며, 뒤에는 修道院의 영향을 표시하는 작품이

17) 尹張變, 전계서, p.151.

18) 장문호, 서양미술사, 형설출판사 : 서울, 1997, pp.92~93.

19) 김문경,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 미진사 : 서울, 1983, p.26.

20) 이영환, 전계서, pp.190~191.

21) 상계서, p.162.

나타났다.²²⁾

특히 이론은 중세인들에게 있어서는 한갓 예술 작품으로서가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종교적인 것이었다.

로마네스크 시대의 회화장식은 실내에 대규모로 사용되었고, 畫法은 黑線으로 하고 그 속에 단색으로 陰影 없이 칠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숭고한 감을 주게 하였다.

로마네스크 사원은 프레스코화에 의하여 벽면을 치장했으며, 그것은 사실성을 버리고 평면성의 철저를 도모하여 독특한 도형화를 구사해서 선중심의 태생(素描)이 되며, 광선과 그림자의 요소도 약속화된 형태를 그리게 되었다. 미니어취는 로마네스크 圖像 예술의 가장 풍부한 부분으로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중요한 작품활동을 남긴 곳은 독일, 영국, 스페인이다.²³⁾

대성당 건축이 내리막 길에 들어서면서 스테인드 글라스의 수요는 줄어들었고 1250년 이후에는 채색사본이 다시 프랑스 회화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수도사들이 독점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일반 세속인이 세운 도시 공방에서 만들었다.

고딕 회화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일련의 장면이 이미지화되는 과정을 단순하게 그림으로 풀이하는 차원을 초월하였다. 중심 줄거리 주위에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무엇인가를 배치함으로써 그 주제에 대해 글로 쓰는 것 이상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것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의 표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회화공간의 다양성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²⁴⁾

초기의 고딕 화가들은 벽화나 회화에 있어 상징적 표현의 수단으로서 뚜렷하고 청명한 색조를 사용하여 단순 명료한 상징적 효과를 탐색하였고, 형태 또한 마찬가지로 다루어졌다.

14세기 중엽에 처음 시작된 판화는 성당에서 추방된 회화가 제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욕구에 응하는 형식을 가졌다.²⁵⁾ 미니어취는 고딕 회화의 특색이 풍부한 부분이다. 왕후를 위한 경전 사본이 많이 만들어졌으나, 전시대와는 다르게 세속적인 화려함과 세련된 아름다움을 겸비한 작품이 제작되었다.

3) 타피스트리

타피스트리(tapestry)라는 명칭은 베르뒤르(verdure)²⁶⁾라 불리우는 벽걸이와 함께 근세 이후의 고블랭(gobelins)²⁷⁾과 구별되어 그 이전의 중세의 색실로 풍경을 짠 벽걸이를 총칭한다.²⁸⁾

타피스트리를 많이 사용한 것은 고딕시대로 건축의 벽면을 장식하는 미술품으로서, 유럽·중세 건축의 보조수단으로서, 하나의 미술형태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중세의 생활에 있어서 타피스트리는 장식미술 공예품과 함께 중요한 생활필수품이었다. 돌의 차가운 벽을 덮어, 바람의 차가운 기운을 막는 스크린의 역할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난로를 중심으로 작은 방을 만들거나 방을 분할하는데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

타피스트리는 특히 왕후의 거주지 변경·주거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이러한 실용적인 용도에 더하여 인간의 미적 관심의 발로

22) 金龍鏡, 서울고예사, 학문사 : 서울, 1976, p.71.

23) 상계서, p.79.

24) 우메다 가즈로, 이미지로 본 서양미술사, 1989, p.54.

25) 尹張變, 전계서, p.90.

26) 베르뒤르(verdure) : 나무숲, 잎사귀를 묘사한 靑草모양의 색실로 짠 벽걸이.

27) 고블랭(gobelins) : 파리에서 만들어진 섬세한 장식을 사실적으로 짠 직물.

28) 服部照子, ヨーロッパの生活美術と服飾文化Ⅰ, 源流社 : 東京, 1986, p.6.

로서 거주하는 장소를 예술적으로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성, 궁전 등의 장엄한 홀에 크고 화려한 타피스트리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벽화와 같이 여러 가지 정경을 자유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운반하거나 배치를 바꾸는 것도 손쉽게 가능하였기 때문에 귀족·영주들의 주변에서 움직이는 프레스코화로서 매우 애호되었었다. 이리하여 침실의 천장, 침대나 의자의 등받이로서, 때로는 발을 딛는 발판까지도 타피스트리의 디자인에 어울리는 통일된 테마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직물을 소유하는 것은 또한 부, 권력, 위대함의 상징으로서 소유자의 사회적 위신을 과시하는 가치를 갖기도 하였다. 14세기의 왕후들은 호화로운 타피스트리를 많이 소유하고자 서로 경쟁하듯 하였으며, 이것을 선물하는 것 만큼이나 멋진 선물은 없었다.

타피스트리에 나타난 주제 역시 종교적인 것으로 신앙심을 고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탈기로 가면서 새로이 나타난 자연주의와 더불어 세속적인 주제가 등장하였다. 인물들은 인간적인 풍부함으로 가득했으며,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제작되었던 타피스트리는 수도원 밖의 공장들에서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인들은 스스로 조합이나 길드를 형성하여 직조의 품질과 조합을 보호하였다.

고딕시대 타피스트리의 화면 구도에 있어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 설명적인 구도와 선명한 색채의 사용, 사실적인 초화문양의 사용, 유희와 거의 흡사하게 많은 인물을 사용함으로써, 풍부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중요한 인물은 부각시켰고, 장소의 묘사에서는 성벽이나 냇가를 경계로 하여 장면을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삼차원보다는 이차원적인 표현 처리를 주로 사용하였다.²⁹⁾

프랑스에서는 13세기 이래 司敎나 추기경, 브르고뉴의 군주들을 시작으로 하는 대봉건 영주, 프랑스왕, 그리고 親王들이 많은 주문을 하여, 그 제작은 15세기까지 번창하였다.

특히 14세기 후반부터, 샤를르 5세의 지배하(1364~1380)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14세기 중반 이후, 紋章의 디자인이나 벽에 붙이는 원형 모양의 단순한 형태의 것에서부터 보다 복잡한 디자인까지 이용하여 타피스트리는 각 시리즈들로 만들어져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용도의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14세기의 걸작, 유명한 안제의 목시록 시리즈도 있었다.³⁰⁾

이러한 주제의 타피스트리는 드디어 역사적, 문화적, 우의적인 풍경, 전원풍경, 연주회, 수렵, 전쟁들의 중세의 생활감정이 밀착된 세속적인 제재가 사용되었으며, 14~15세기에는 타피스트리의 황금시대였다.

4) 장식공예

초기 기독교 시대의 금속공예는 기독교 관계의 것이 주로 되어 있다. 황금제의 십자가나 法皇王冠 등이 현존해 있는 것도 있으며 장신구, 銀器, 銅器 등의 기법도 로마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이 기법은 페르시아에서 배운 것으로 금이나 금은 합금의 판 위에 금의 띠 모양으로 한 작은 조각으로써 바탕 그림을 그려고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유약을 넣어서 높은 화도로 구운 것인데 색채는 보통 빨강, 주홍, 파랑, 보라, 노랑, 하양, 검정 등이다.

기타 鑄造, 彫金, 打出, 象嵌 등의 기법을 사용해서 은기류, 사원용구, 향로, 촛대, 등이 제작되었고,³¹⁾ 비잔틴 미술이 독립된 형으로 형성되어갈

29) 服部照子, 전계서, p.7.

30) 상계서, p.10.

31) 金龍鐵, 전계서, p.70.

즈음엔 신도들의 순례로 인한 상업 교역이 흥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他國에 끼친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비잔틴 상아조각, 에나멜, 칠보, 자수품 등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精密細工이 잘된 칠보나 瑤瑯細工의 그릇, 촛대, 상아 조각품, 유기제품 그리고 직물제품 등은 종교를 위한 장식미술로 기술면에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³²⁾

로마네스크 시대의 금속공예는 공예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종류는 성제기구, 장신구 및 건축용 금구 등으로서 靑銅, 金, 銀을 주로 하고 鐵도 사용되었다. 공작기법은 鍛金, 打出, 透刻, 線刻, 象嵌 등이다.

고딕 시대의 금속공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예로서 에마이유³³⁾도 달아서 만들었으며 많은 성당을 치장했다. 문짝, 띠장쇠, 神龕, 障壁, 點燈器具 기타 일반 건축 금구는 주로 쇠를 사용하고, 鍛金, 型入鍛治, 切金 등의 기법으로써 精巧한 것이 만들어졌다. 靑銅器, 銅器, 貴金屬 제품도 위와 같은 수법으로서 정밀하게 만들고 청동제판이 달린 촛대와 성제기구, 금은제의 신갑, 장신 등이 보인다.³⁴⁾

2. 복식문화

중세복식은 기독교적인 신앙심을 그 기반으로 육체를 부정하여 신체를 감추었고 동양의 영향으로 화려한 견직물에 금, 은사로 수놓은 자수, 보석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의복의 주를 이루었다.

또 종교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 조화에 중점을 두어 직물과 문양, 액세서리에 쓰인 색채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白色은 순결을, 靑色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죄를 씻어 淨하게 하는

신성함을, 赤色은 神의 사랑을, 紫色은 위엄을, 綠色은 영원한 젊음을, 黃金色은 덕이나 선행을, 밝은 황색은 풍성함을 상징하였다.

비잔틴의 대표적인 의상은 튜닉(tunic), 달마티카(dalmatica), 팔루다멘툼(paludamentum)이었고, 팔루다멘툼은 황제, 황후 등 귀족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으며, 평민들은 팔라(palla), 팔리움(pallium)을 입었다. 남녀 모두는 긴 소매가 달린 T자형 튜닉을 입고 허리에 띠를 매었다. 팔루다멘툼은 튜닉위에 입은 것으로 사다리꼴 또는 반원형의 천을 오른쪽 어깨에서 장식핀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왕족은 양쪽 가장자리 중간에 금, 은사로 자수를 놓거나 보석으로 장식된 타블리온(tablion)이라는 사각형의 장식천을 붙여 신분을 나타내었다. 후에 이것은 왕족, 귀족, 또는 사제만 착용하는 비잔틴의 공식복이 되었다. 달마티카는 1세기 경 달마티아 지방에서 소수의 기독교 인들이 착용하기 시작한데서 유래된 통 넓은 소매가 달린 튜닉 형태의 의복이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 왕족이나 교황, 사제들 뿐만 아니라 귀족까지도 모두 착용하여 비잔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의복이 되었다.

비잔틴 복식의 특징은 그들의 상징적인 紋樣에서 찾을 수 있다. 즉 圓, 洋, 비둘기, 十字, 성서의 장면 등의 종교적 문양을 전면이나 가장자리, 또는 타블리온안에 東方風의 화려한 감각으로 장식한 것이다. 비잔틴의 문양은 무늬와 空間과의 관계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으며, 평면적이고 무게 있어 보이는데 그 특징이 있다.³⁵⁾

서유럽 중세 초기의 복식은 그리스·로마적인 복식을 기반으로 해서 근육적인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요소와 四肢를 감싸는 게르만적 의복구성 요소를 혼합시켜 고대복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를 낳게 되었다.³⁶⁾

32) 喪滿實, 장식미술사, 지문당 : 서울, 1994, p.109.

33) 金龍鎮, 전계서, p.78.

34) 상계서, p.85.

35)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 서울, 1987, p.85.

36)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 서울, 1992, p.110.

의복 종류는 크게 튜닉, 브레(braies), 망또(manteau) 세가지로 볼 수 있다. 튜닉은 남녀가 다 착용한 T자형의 기본적인 의상으로 남자들의 튜닉 길이가 짧아지는 반면에 여자의 길이는 발목까지 길게 입어 남녀 튜닉의 성차가 나타난다. 브레는 게르만인의 튜우튼語에서 유래된 말로 바지를 가리킨다. 주로 노동할때나 말을 탈때 남자들이 입었던 것으로 사용이 보편화되자 남자들은 주로 짧은 튜닉에 헐렁한 브레를 받쳐 입었다. 망또는 추위를 막기 위해 직사각형이나 반원형의 무거운 모직천을 어깨에 두르고 앞중심이나 오른쪽 어깨에서 핀으로 고정시켰다. 황제는 팔루다멘툼이나 로름을 착용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면서 후기로 갈수록 비잔틴의 영향을 주로 받아 복식이 화려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9세기경까지에 해당되는 중세 초기의 복식은 원시단계에 머물러 있는 암흑시기가 볼 수 있다.

중세 중기의 복식은 12세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이 갖고 있는 混合性이 게르만적 요소를 바탕으로 고대 로마스타일의 부활과 로마 카톨릭의 영향 그리고 비잔틴의 동양적 요소가 융합되어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로마네스크 시대의 후기의 의복은 신체 그 자체의 曲線을 부드럽게 살릴수 있는 形態美와 자수, 다채로운 문양 등의 裝飾美가 혼합되어 중세적인 독특한 분위기를 지닐 수 있었다.³⁷⁾

중세를 지배한 정신적 지주로서의 그리스교는 복식에도 반영되어 성직자의 복장은 여전히 비잔틴과 같았고, 종교적 주제의 문양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로마네스크 복식의 일반적인 모습은 흰색의 린넨(linen)으로 만든 쉥즈(chainse)위에 블리오(bliaud)를 입고 맨틀(mantle)을 걸친

것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 남녀 의복인 블리오노 오버-튜닉(over-tunic)으로 상하가 분리되어 재단되었는데 이는 게르만인의 신체를 감싸는 밀착형 의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블리오의 상체는 몸에 꼭 맞고 하체는 길고 넓어서 잔주름이 생겼다. 이것은 게르만인의 영향으로 인체의 곡선에 따라 나타나는 드레이프 미와 얇은 감의 사용에 따라 생기는 리듬감이 이오닉 키톤의 부드러운 주름미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³⁸⁾

중세에는 봉건제도에 있어서 영주 밑에 귀족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家臣들이 서열에 따라 토지·무기·말·보석·호화로운 의복 등을 차이나게 받았으므로 보석이나 의복이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사계급의 출현과 기사도 정신은 약한자를 돕는 정신이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데서 신체미를 더욱 가꾸기 위해 복식이 화려해지고 몸에 밀착되는 형태 등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³⁹⁾ 또한 로마네스크 양식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중세 말기의 복식은 십자군에 의해 동방의 뛰어난 기술로 짜여진 견직물을 유럽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13~14세기를 통해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직물공업이다. 이것이 고덕 양식과 교차하면서 특징적이고 복잡한 복장양식이 형성되었다.

십자군의 영향은 복식의 간접적으로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形이나 文樣 등에 새로운 기풍을 가져왔다. 즉 군복이 일상복으로 유행하게 되어 패드를 댄 조끼형태로 방패막이인 쥐뿔(gipon)이나 사막의 햇빛, 먼지로 부터 갑옷을 보호하기 위한 겂옷인 쉬르코(surcot) 등이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사라센풍의 단추나 군복의 칼자국인 슬레쉬

37) 정홍숙, 전계서, p.106.

38) 성지숙, 로마네스크 시대 복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61.

39) 신상옥, 전계서, pp.118~119.

(slash), 전리품이나 십자가를 간수하기 위한 주머니 등 세부장식이 성행하였다.⁴⁰⁾

십자군 원정에서 비롯되어 고딕복장을 특징지은 것은 각 家門의 상징적인 문장의 사용이다. 문장은 13세기 초까지 쉬르꼬가 흰색마, 또는 흰색견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각기의 군단을 식별하기 위해 쉬르꼬위에 기사와 문장을 붙이도록 하거나 전신을 덮는 甲冑가 고안됨에 따라 전장에서도, 경기장에서도 신분을 밝히기 위해 방패에 붙인 것과 같은 문장이 쉬르꼬나 쥘뽕류의 의복위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⁴¹⁾ 또한 13세기에 도입된 파티컬러드(parti-colored)는 의복을 세로선으로 반갈라서 대조되는 색으로 장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장복과 다채로운 색의 복식은 이 시대에 성행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찬란한 색채 감각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문장복은 점차 평상시의 복장에 문양화되면서 장식과 신분상징의 구실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고딕 건축의 尖頭의 외관은 복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의상의 전체적으로 길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이나 앞이 뽕족한 구두, 높고 뽕족한 모자, 소매나 옷단의 톱니 모양은 모두 이러한 銳角의 감각을 반영하고 있다. 달라붙는 상체와 스커트의 실루엣은 허리를 더욱 가늘게 보이도록 했으며 깊게 파인 V자형 목둘레와 머리에 높고 솟은 에냉을 착용하여 머리로부터 상체, 스커트에 이르기까지 균형과 조화, 리듬 등을 이루며 예각형을 더욱 강조하여 아름다운 형태미를 나타내었다.

십자군전쟁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는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점차 중세적인 기독교의 관념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이러한 심리는 우선 자신의 치장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복장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유발시켰다.

종래의 정적인 생활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

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의상형태는 사라지고 꼬뜨(cotte)와 같은 편리한 형태가 나타났다. 13세기의 기본 복식은 튜닉이나 블리오의 변형인 꼬뜨를 입고 그 위에 쉬르꼬를 입었다. 꼬뜨는 남녀가 함께 입을 튜닉형의 원피스 드레스로 블리오보다 단순하고 소박하다. 14세기 남자의 기본 복식은 위에 꼬다르디(cotehardie)나 뿌르뽕웨(pourpoint)를 입고 아래는 쇼오즈를 입고 여러가지 종류의 외투를 걸치는 것이었다. 여자는 꼬다르디를 입고 쉬르꼬나 맨틀을 착용하였다. 꼬다르디는 꼬뜨의 변형이며 허리는 맞고 스커트가 길고 풍성한 스타일의 원피스 드레스로 남녀가 모두 입었다. 이 옷은 앞중심에 단추를 촘촘하게 단 것이 특징이다. 14세기 말에는 의상의 과장화 현상으로 부피가 크고 호화로운 우뽕랑드(houppelande)를 걸옷으로 착용하였다.

머리모양은 고딕 말기로 갈수록 인위적이며 지나치게 장식적이었는데 고딕양식의 점예함을 나타내던 에낭(hennin)은 가장 특징적인 모자라 할 수 있다. 신발은 전세기부터 뽕족해지기 시작한 것이 고딕시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고딕시대에는 수세기 동안 거의 없었던 남녀의 복의 성차가 처음으로 뚜렷해졌는데 남자의 의상은 짧아지고 여자의 의상은 몸에 꼭 끼게 되어 몸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화려한 장식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십자군의 영향으로 갑옷 속에 입는 뿌르뽕웨를 꼭 맞게하기 위해 입체구성이 발달하게 되었다.

IV. 생활미술에 나타난 복식문화

1. 건축물

그리스도교 미술은 시각에 비취지는 自然界의

40) 정홍숙, 전계서, p.115.

41) 최영옥, 서양문장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 중세 서양 문장과 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18, No. 1, 1994, p.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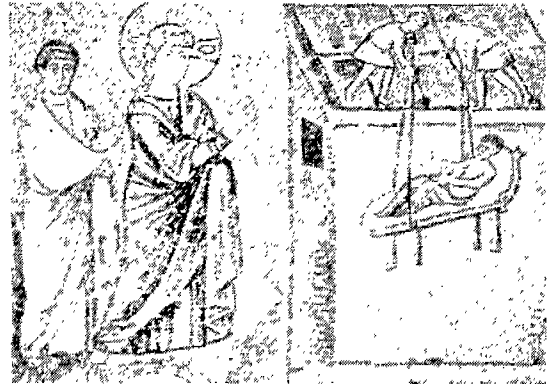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스러운것, 본래 윤곽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예술의 목적인 것이다. 즉 단순히 감각적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적 수단을 통하여 靈的세계의 인식에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건축에 있어서는 자연광을 가득받고 세련됨을 갖추기 위해 온갖 기교를 부려서 외관의 조화미를 추구하려는 그리스 성전에 비하여 외관은 자연계나 俗界에 대항하듯이 城牆의 엄숙함을 지니는데 그 내부에 있어서는 현란한 빛과 색채의 효과에 의하여 초자연계의 영광을 현실화하는 것이다.⁴²⁾

교회가 승리를 얻음과 함께 지상에는 차례차례 大會堂이 건립되었으며 넘치는 승리의 찬가를 소리높여 부르기에는 모자이크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었다. 단순한 장식기능 외에 教義의 圖解라는 교화적 목적을 위한 모자이크는 더욱이 祭祀典禮에 참가하기 위해 금색, 최고의 색채의 장식을 몸에 두르는 것으로 예술로서도 한층 더 진보를 가져온 것이었다.⁴³⁾

원래는 마루의 표면을 덮기 위해서 생각되었던 모자이크가 벽면에 적용된 것은 중세의 색채에 의한 건축장식의 변모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最古의 모자이크 작품은 하기오스·제오르기오스 圓形堂의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림 1>은 6세기 전반의 산·타폴리나레 누오보(Sant' Apollinare Nuovo)성당의 왼쪽벽에 있는 것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있는 '기적'이라는 시리즈 13작품중의 하나이다. 이 모자이크에서 보면 이분된 왼쪽에는 그리스도가 使徒 한명과 함께 있는데 오른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듯한 포즈를 하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 1> 카파나움의 중풍환자치료

(世界美術全集28-西洋(4)中世Ⅰ-, NO. 5)

에는 구원을 원하는 듯 양손을 내밀고 있는 중풍환자를 두 남자가 지붕위로 끌어 올리고 있다.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했기 때문에 피부의 노출이나 신체의 선을 눈에 띄게 하는 일을 꺼려하여 의복은 보통 헐렁하게 해서 육체를 나타내지 않는 스타일이 사용되었는데 이 모자이크화에서도 보듯이 발목길이의 긴 튜닉위에 로마의 토가가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풍성한 卷衣를 착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잔틴복식은 고대의 고전적 복식의 확실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드레이퍼리가 남아있다고 보이며 호화로움과 색에 있어서는 주로 近東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⁴⁴⁾

<그림 2>는 1180~119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몬레알레 대성당의 모자이크화인 '이삭과 에서(Issac and Esau)'의 일부이다. 이 모자이크화는 화려한 색과 동적인 구도의 우수한 몬레알레 작품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⁴⁵⁾

12세기 비잔틴은 페르시아 군인에 의해 입혀진 느슨한 카프탄형이 고상한 의복으로 유사하게 변형되어 입혀졌는데 앞중앙이 절개된 새로운 형태로 유행하였다. 이것은 길이가 길거나 짧으며 타

42) 世界美術全集 28-西洋(4) 中世Ⅰ-, 角川書店:東京, 1964, p.145.

43) 世界美術全集 29-西洋(4) 中世Ⅱ-, 角川書店:東京, 1964, p.158.

44)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NY, 1987, p.62.

45) 데이비드 탈보트라이스, 비잔틴 세계의 미술, 미진사:서울, 1989, p.26.



〈그림 2〉
이삭과 에서
(Issac and Esau)
(비잔틴 세계의
미술, p.26.)

이트한 소매의 가장자리에는 끈장식과 모피로 장식되었고 벨트를 하고 금도금으로 장식되었다. 바지는 타이트한 발끝길이의 것이며 그 위에 검정, 빨강, 노란가죽의 긴 부츠를 신었다.⁴⁶⁾ 소매가 손목에 꼭끼이고 옷길이가 짧아진 것, 스커트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은 9~11세기에 걸쳐 중세복식이 몸에 꼭맞는 의복으로 변화되는 첫단계로 볼 수 있다.⁴⁷⁾ 이 모자이크에도 그러한 경향이 보여 지는데 카프탄 형식의 약간 여유있는 옷은 붉은 기운이 도는 색이며 옷의 주름처리는 진한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목둘레, 앞여밈단, 밑단 둘레에 노란색의 넓은 장식선이 둘러져 있고, 다리에는 꼭맞는 푸른색의 바지위에 신축성 있는 가죽으로 무릎까지 감아올리는 형태를 하고 있다.

고딕 시대에 스테인드 글라스는 로마네스크의 모자이크 대신 발달하여 성당의窓에 설치되었는데 현존하는 最古의 것은 11세기의 '그리스도 얼굴의 부분'이다.⁴⁸⁾

스테인드 글라스가 건물을 비, 바람으로 부터의

보호, 採光의 도입이라는 窓의 기능을 하면서 벽화를 대신하는 기념비적인 예술이된 것은 로마네스크부터 고딕으로 전환되는 12세기 중엽이었다. 오랜세월을 거친 기술의 축적결과 남독일의 修道士 테오필스가 그의 저서에서 증언하듯이 12세기 초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법이 확립되었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지역에서 왕성한 제작 활동이 개시되었다.⁴⁹⁾



〈그림 3〉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p.41.)

〈그림 3〉은 영국 켄터버리 대성당(Canterbury Cathedral)의 북쪽 아일(Aisle)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묘사된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1200년경의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나쁜땅에 떨어져 잘 자랄 수가 없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비옥한 토양에 아낌없이 뿌려진 종자에서 정의가 변영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연을 구운 굵고 검은 선이 단순하게 구획지어 윤곽짓는 사이로 靑色과 赤色 주조의 색채 감각으

46) BOUCHER, 전계서, p.63.

47) 신상옥, 전계서, p.112.

48) 若宮信晴, 西洋裝飾文様の 歴史, 文化出版局:東京, 1980, p.276.

49) 世界美術全集 29, 전계서, p.189.

로서 씨뿌리는 사람과 전원 풍경이 잘 드러나 있다.⁵⁰⁾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는 넉넉한 튜닉형의 의복에 네크라인에는 장식선이 있고 소매는 타이트하고 길며, 붉은 겉옷아래 녹색의 속옷이 보이며, 푸른색의 호즈와 열은 황토색의 짧은 덧양말인 듯한 것을 신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赤色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함께 사용된 綠色은 영적인 재생, 싹튼 생명의 색을, 靑色은 경건한 신앙을 나타내어 선명한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의복을 통해 고딕복식의 화려함과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
그리스도의
태형(十字架)
(世界美術全集
29, p. 50.)

<그림 4>는 노브고로드(Novgorod) 대성당의 청동문으로 크리마아 반도를 거쳐 들어온 비잔틴 미술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새겨진 글귀의 해독에 의해서 이것은 12세기에 맥드버그(Magdeburg)에서 주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본래 노브로르드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폴로스크(Polotsk)를 위해서 주조된 것이며, 각 곳에 변형된 점이 인정되었다. 전체 26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 두쪽의 문중 왼쪽은 그리스도 唯我傳, 오른쪽은 수난의 여러장면을 두꺼운 부조로 나타내고 있다.⁵¹⁾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왼쪽의 인물은 섬세한 주름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부드럽고 풍성한 천으로 만든 腰衣를 입고 있고 오른쪽의 인물은 돔(Dome) 형식의 모자와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발목길이의 옷을 입고 있는데 허리에 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하로 분리된 듯 하다. 여기서의 의복의 문양을 섬세한 線刻으로 나타내는 방법, 달갈모양의 얼굴에 감도는 일종의 슬픈 느낌, 독특한 생기있는 자세 등을 볼 수 있다.

11세기부터 12세기까지 여러곳에 이러한 銅門이 산재하고 있는데 남이탈리아의 예는 대부분 콘스탄티노플과의 교역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동문의 제작에 대해서는 鑄造에 참가했던 職人들이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제작후 운반된 것인지는 중세 미술의 광범위한 교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그림 5>
보이아나의 벽화
(비잔틴 세계의
미술, p.28.)

<그림 5>는 1259년경 보이아나의 벽화로 ‘세바스토크라터 카로이안과 그의 왕비 데시슬라바(The Sebastocrator Kaloian and his Consort, Dessislava)’이다. 비잔틴 직조기술로 짜여진 의상을 입고있는 것으로 보아 콘스탄티노플과 밀접

50)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中世美術-, 東亞出版社: 서울, 1988, p.126.

51) 世界美術全集 29, 전제서, pp.233~234.

한 접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⁵²⁾ 비잔틴의 마지막세기(13~15세기)동안의 황제는 길고 뺏뺏하며 손목이 타이트한 자주 또는 검정색의 사코즈(saccoz)를 착용하였다.⁵³⁾ 황제나 상류층에서 입는 긴 튜닉은 아래단에 선장식을 두르고 있고 소매는 길고 꼭맞으며 허리에는 띠를 매어 입었는데 대개 남자는 로우웨이스트에, 여자는 하이웨이스트에 매어입었다. 비잔틴시대의 일반적인 여자의 머리는 밖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귀족의 경우는 보석과 진주로 장식된 황금관이나 터번풍의 모자로 덮고 거기에 얇은 옷감으로 된 베일을 씌웠고 신분이 낮은 여자들은 코이프(coif)나 드레스 혹은 망토와 같은 천으로 된 큰 두건으로 머리를 감추었다.

이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비잔틴 장식문양은 공간을 채우는 듯한 精神的意圖가 작용하고 있으며 형식화된 우아하고 아름다운 당초문양을 동방적으로 추상화시켰고, 좌우대칭의 기하학적 장식문양, 금을 사용한 화려한 색채효과에 그 특징이 보여진다.

비잔틴 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은 황제숭배의 바탕에 교회, 政權, 神權이 결합한 궁정취미가 반영된 호화, 화려한 문화였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교 미술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건축의 내·외부 장식, 종교적 요구를 중심으로 개화했다고 볼 수 있다.⁵⁴⁾

2. 회 화

11세기초부터 12세기미술을 가리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로만스타일의 부활이 아니라 중세유럽 고유의 아름다운 창조성에 논거한다는 것이었다.

<그림 6>은 11세기초 하이리히 2세의 복음서에



<그림 6> 동방박사의 예배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중세, p.25.)

있는 '동방박사의 예배'라는 그림으로 양피지위에 그려져있다. 복음서와는 다르게 敎會曆의 순서에 따라 미사때에 낭독하는 복음서의 초를 모은 것을 페리코펜 부호(Perikopen buch)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인리히 2세가 왕으로 있었던 1007년 당시 밤베르크(Bamberg)의 대성당에 봉납한 페리코펜 부호의 삽화이다. 대체로 인물을 길게 그리고 화면에 비해 인물의 비중을 크게 담았으며 그 묘사에 있어서 강렬한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황금바탕의 대담한 사용이나 대비색의 구사가 그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3명의 동방박사는 달마티카풍의 무릎길이 튜닉 위에 맨틀을 입고, 다리에는 브레를 입고 있으며 가죽으로 만든 부츠를 신고있다. 이 맨틀은 직사각형이나 반원형의 무거운 모직으로 된 것이며 오른쪽 어깨에서 편이나 브로치로 고정하였다. 또한 동방에 기원을 둔 미트르(mitre, miter)나 티아라(tiara)는 僧職에 있는 사람은 물론 俗人들 사이에서도 쓰여졌는데 11세기경이 되면 한층 호화롭게 장식되고 있다.

<그림 7>은 샤르르5세를 위하여 제작된 중세 프랑수어에 의한 年代記로 특히 聖王 루이, 장·르

52) 데이비드 탈보트라이스, 김지의·김화자역, 비잔틴세계의 미술, 미진사: 서울, 1989, p.28.

53) BOUCHER, 전게서, p.63.

54) 若宮信晴, 전게서, p.86.

55) 世界美術全集 29, 전게서, p.220.



〈그림 7〉 Charles 6세의 戰冠(13751379)
(世界美術全集29-西洋(4) 中世Ⅱ-NO. 9)

· 본, 샤르르4세, 5세의 傳記에 십자군원정과 예루살렘점거의 역사를 더한 4장의 삽화가 뛰어나다. 더욱이 첫머리에 있는 샤르르 6세의 관을 엮은 장면은 건축 모티브의 가장자리장식, 玉座장식, 붉은색과 푸른색의 벽면에 보이는 기하학무늬와 王家의 백합무늬 등에서 뛰어난 솜씨를 볼 수 있다. 또한 아랫쪽의 원편에 서있는 호위병들의 서민적인 표정과 윗쪽의 궁정신하, 성직자들의 이상화된 고귀한 표정과의 대립이 명확하여 흥미롭다.⁵⁵⁾

13세기말경에는 특히 14세기와 15세기에 잭(Jack)이라고 불리는 엉덩이 길이의 짧은 실크 실크 행위에 부거워보이는 패드를 댄 의복이 군대의복에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15세기 중엽 비슷한 모양인 자케트(Jacket)의 유래가 되는 것이다.⁵⁶⁾ 또한 긴옷은 짧은 옷의 출현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중년의 사람들은 여전히 긴 옷을 입었으며 14세기의 왕과 군주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된 새로운 계층의 복장이 되었다. 세금추징과 벌칙시행

을 하는 고위공무원인 행정가들은 중간계급이나 귀족들과 구별하기 위한 의상을 입으려고 했고 이때문에 공식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리국회의 행정가들은 테라리스(Tairaris)라는 긴 가운을 입었으며 나중에 판사, 변호사, 행정장관에게까지 확대되었고 14세기 말에는 호즈, 타바드(Tabard), 망또, 긴 가운을 갖추어 입게 되었다.⁵⁷⁾ 고딕 시대의 길이를 강조하는 경향은 긴 꼬리가 달린 릴리파이프(Liripipe)라는 후드형식의 쓰개에도 보이는데 꼬다르디에 붙은 티펫(Tippet)과 경쟁적으로 길어져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길어져서 목이나 팔에 두르기도 했다. 그림의 아래편에 서있는 호위병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8〉 보헤미아 지방의 유리공
(서기 1000년과 서기 2000년, 그 두려움의 흔적들, p.52.)

〈그림 8〉은 15세기초의 것으로 건축중인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쓰일 유리를 제작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모래를 가마로 작업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래와 소다, 착색을 위한 금속 산화물을 가마에서 가열하여 만든 색유리를 불어

56) BOUCHER, 전계서, p.86.

57) 상계서, p.89.

서 板狀으로 만들고, 밀 그림에 맞춰 각각의 색유리를 잘라 그리자일(Grisaille)이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섬세한 데생을 가열하여 붙이고 아연테두리르 결합해가는 공예적인 수법은 工人들의 강한 인내심과 노력에 의해 커다란 건축적 규모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떠받친 힘은 중세사람들의 '빛의 예술'로의 강한 동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윗쪽에서는 모래를 떠담아 나르고 아랫쪽 가마에서는 가열하여 얻은 유리를 붙여서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둥근 네크라인의 꼬다르디는 앞여밈을 단추같은 것으로 여미고 있으며 윗몸이 꼭맞고 허리 아래로 플레이어지는 부분의 옆선에는 활동성을 위한 슬릿이 있다. 발에는 호즈를 신었는데 짧은 양말 같은 것을 덧 신기도 했으며 머리에는 끝이 뾰족해지고 챙이 있는 것, 앞뒤로 角이 나온 것, 후드같이 머리전체를 감싸는 것, 머리싸개 수건같이 감싸는 것 등을 썼는데 유리를 붓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는 천 조각으로 머리 띠를 만들어 질끈 등어맨 모습도 볼 수 있다.

농노계급에 주어졌던 많은 일과 억압, 그리고 극도의 빈곤으로 인하여 농노계급에서 해방될 때까지 그들의 의복은 단순했다. 두건모양의 사이온(Sayon)이나 케이프는 남녀모두 입을 수 있었으며 14세기초의 농노들은 린넨바지와 모직으로 된 옷과 신을 신었다.⁵⁸⁾

중세 농촌 지역의 남아도는 인구가 도시에 유입됨에 따라 도시는 비대해지기 시작했고 주택건설은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예배당을 제외하고는 목조 건물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석공이 목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벽돌은 경비 절약과 운송의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였다.⁵⁹⁾

〈그림 9〉에서 보이는 노동자 계급의 의복은 거



〈그림 9〉 고딕시대의 건축하는 사람들
(The Atlas of Medieval Man, p.1.)

추장스러운 장식이나 부피감 없는 스타일로써 몸에 꼭맞는 상의로 카프탄 형식의 앞여밈이 깃처럼 밖으로 젖혀져 있으며, 상의는 3겹을 겹쳐 입어 흰색, 파란색, 분홍색 또는 흰색, 푸른색, 노랑색 등의 색조합이 보인다. 하의로는 꼭끼는 호즈를 입어서 다리선이 그대로 들어나는데 주로 붉은색이며 푸른색과 녹색의 호즈도 보인다. 이 호즈는 브르뵘의 밑단에 끈으로 고정하였는데 이러한 차림은 15세기에 널리 퍼졌고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라는 의복의 남녀차이는 여기서부터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복장을 하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듯하다.⁶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5세기초 남자의 머리모양은 점잖지 못해보이는 기괴하고 색다른 유형의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머리전체를 짧고 곧게 잘라 마치 푸딩용기같은 모양이어서 목과 귀를 노출시키고 짧게 자른 머리모양위에 작은 모자로 덮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허리에는 짧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도 보이고, 발에는 끝이 뾰족하게 나온 고딕 시대의 전형적인 신을 신고 있다.

〈그림 10〉은 15세기초 랭부르 형제에 의해 시작된 기도서로서 뛰어난 걸작인 '베리공의 매우 호

58) BOUCHER, 전계서, p.79.

59) GEORGES DUBY, 서기 1000년과 서기 2000년의 그 두려움의 흔적들, 동문선 : 서울, 1997, p.32.

60) 原田二郎, デザイナーのための 西洋服装史, 源流社 : 東京, 1976, p.86.



〈그림 10〉 베리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
(미술의 이해, p.4.)

화로운 기도서'의 6월圖인데 중세적 순진무구함과 더불어 형식적 관례 등 사실적인 세계를 결정화시켜 보여준다.

정해진 시간의 테두리속에 기도의 실천을 성문화해 놓은 이 기도서들은 성축일과 교회의 축제일을 일람표로 만들고 열두가지 주제에 의해 공동체의 주기적인 생활을 다달이 도표화해 놓은 달력으로 시작된다. 들에서 쟁기질을 하거나 덩굴을 치우고 건조를 준비하는 일꾼들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여성의 의복은 앞에서 끈으로 매는 형식의 스커트자락이 풍성한 꼬트를 슈미즈위에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베일을 쓰고 있다. 몸에 맨 벨트에 앞자락을 끼우고 있는데 이것은 농사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은 법정에서 있는 간통한 부인의 법적인 재판과정을 보여주는 15세기 채색화로 법률이나 법정에서 여성의 희생적 위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초기 그리스도교시대부터 르네상스시대까지 여성의 법적지위는 억압되어 있었다. 여성이 간통죄로 인정이 되면 그 벌은 치명적이어서 그리스와 로마, 교회법 그리고 오랜기간의 영국법과 심지어



〈그림 11〉 법정에서의 재판
(법과 미술, p.129.)

매사츄세츠의 초기법이 간통한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⁶¹⁾

이 시기의 각 색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색의 사용은 제한이 있었는데 남작 지위 이하의 사람들은 붉은색의 복식의 사용을 금하였고 행정판사, 치안판사, 행정관 등은 검정색, 붉은색, 자주색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검정, 빨강, 보라색은 행정가, 판사, 공무원에게만으로 제한되었는데 보라색은 일부지역에서는 변호사들의 가운데로 채택되기도 했고 버건디(Burgundy)와 두크(dukes)아래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붉은 옷을 입기도 했다.⁶²⁾

쉬르코의 변형인 가르드코르(gardcorp)는 筒形의 긴 소매가 달린 것인데 진동선에 트임이 있어 팔이 밖으로 나오고 목선부터 풍성한 주름이 밑단까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학위 수여식 때의 가운과 흡사하다.⁶³⁾

61) 최종고, 법과 미술, 시공사 : 서울, 1995, p.128.

62) BOUCHER, 전게서, p.89.

63) 신상욱, 전게서, p.137.

3. 타피스트리

아담과 이브의 무화과 앞에서부터 현대의 유행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듯이 신체의 보호와 장식에서 仕居의 보온과 장식으로의 흐름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동굴의 입구에서 바람의 흐름을 막기위해 동물의 가죽을 걸게되어 벽걸이가 발명되었고 이어서 그것을 짜게 되었다.

단순한 기법과 인내심 강한 작업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예술이 된 타피스트리는 고대부터 오리엔트에 있어서, 다음으로 몰럼부스의 발견 이전의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실용화되었다.⁶⁴⁾

타피스트리는 14세기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 발달했는데 그 모티브는 종교적, 역사적인題材에 의한 것, 一角獸, 貴婦人, 花草, 새 등이 이용되었고 점차 사실적인 경향이 더해져 프랑드르에서도 발달했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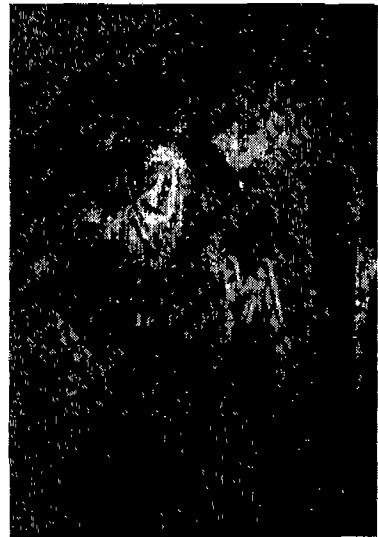
타피스트리의 예술과 취미는 장식적 직물을 수행한 상인들의 중개에 의해, 혹은 十字軍병사의 약탈에 의해서 중세 盛期에 서유럽에 침투했을 것으로 보는데 십자군 병사들이 오리엔트에서 멋진 직물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유럽의 교회나 수도원에서 이미 직물 벽걸이나 자수 벽걸이를 장식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다.

종교적인 작품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많은 위험과 훼손에 직면했던 세속적인 작품에 비해 종교적인 작품들은 수도원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타피스트리는 이동할 수 있는 프레스코(fresco)로서 애호되었는데 사치스러운 流浪者인 大領主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그 권위와 호화로움을 과시하고, 城에서 다른 城으로 이동할 때는 가구들도 함께 이동하기도 하여 당연히 타피스트리도 가지고 다녔을 것

인데 그렇다면 타피스트리가 걸리는 벽과 타피스트리는 같은 치수의 것이 요구되었을 것이며, 이것으로 天地와 左右의 치수가 다양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패널중에도 종종 같은 그림 무늬의 벽걸이가 확인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다음 몇가지 세속적인 소재의 타피스트리를 통해 당시 생활상과 복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복식사상 1350~1480년에 걸친 복식보다 환상적이며 과격적으로 과장된 유행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벌의 궁중의상이 수백가지의 보석으로 장식되고 인체미를 이상적인 스타일로 표현하기 위해 각부분이 과장되었는데 화려한 의상의 주인공은 왕후, 귀족, 기사계급, 성직자들의 것이며 평민의 의복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⁶⁶⁾



〈그림 12〉 산돼지와 곰사냥의 부분도
(ヨーロッパの生活美術と服飾文化, p.137.)

〈그림 12〉는 1425~1450년경의 것으로 그림 좌측에 산돼지 사냥, 오른쪽에는 곰사냥 하는 장면이 보여진다. 숲 저편의 지평선은 높고, 말타고 있는 모습과 격투하고 있는 용감한 모습이 있고, 사

64) Julien Coffinet, Maurice Pianzoia, タピスリー, 美術出版社: 東京, 1975, p.61.

65) 若宮信晴, 전계서, p.124.

66) 김경옥, 서양복식사, 양서각: 서울, 1996,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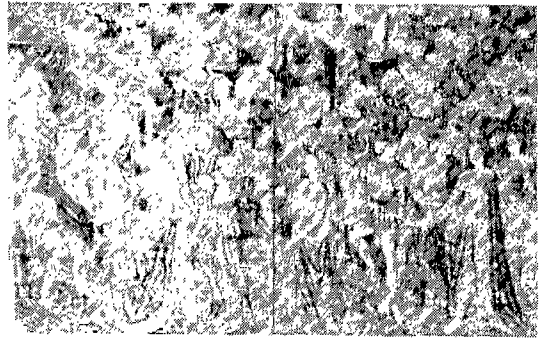
냥감을 쫓는 귀족과 부인들의 차림이 멋지다. 사냥개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 걷고 있는 사람, 말탄 사람 등 다양한 群像들이 이 시기의 타피스트리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작은 나무다리 위에 있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한 머리 쓰개가 눈에 띄는 여성의 의복에는 文字 자수가 있는데, ‘말에 탄 大望의 사람’이라고 읽을 수 있으므로 이것은 예루살렘의 名義上的 왕인 앙주의 루네 공작의 딸인 마가렛과 영국의 헨리 Ⅶ세의 약혼을 기념한 것이라는 설명을 역사적 사실과 연결하여 제창한 톰슨(Thomson)의 주장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⁶⁷⁾

소매의 안쪽, 네크라인, 긴 스커트 자락 등에 장식된 보피는 고딕 시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중세말기에는 귀족계급의 사치스러운 과시욕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기도 했다. 그래서 비싼 고급 모피는 왕실일가와 고위관리만이 독점하여 사용하였고 흰색이나 검정색 담비모피도 귀족계급 외에는 금지되어 모피사용은 계급구분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또한 벨벳은 귀족들의 의복에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독특한 질감과 광택으로 사랑받았는데 당시에는 무늬있는 벨벳, 털길이에 변화가 있는 벨벳, 깎아 무늬를 만든 벨벳, 금은사로 무늬를 짜넣은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아라스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 것 중 <그림 13>은 노트담사원에 보존되어 있는 특이한 복장이 묘사된 ‘야수의 무도회(Le Bal des Sauvages)’이다.

이 흥미있는 주제, 복장은 당시의 풍속을 잘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려한 의상, 어떤 사람은 동물의 모피를 감고 춤과 이야기에 흥겨워 하는 각기 다른 모양의 남녀 군상이 꽤 널 가득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1393년 파리의 세인트 폴 호텔(saint-pol Hotel)에 있는 ‘焚殺의 무도회’와 관련



<그림 13> 야수의 무도회

(ヨーロッパの生活美術と服飾文化, p.22.)

되어 있음이 틀림없다고 추정되기도 했다.

이 타피스트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식적이고 기괴한 형태의 服裝은 다양한 머리쓰개에서도 볼 수 있는데 끝이 뾰족한 예낭(hennin), 원추형의 끝을 잘라낸 것 같은 모양, 타원형의 롤(roll) 상태로 말려진 터번형, 깃 장식, 나뭇잎 모양 장식, 보석 장식 등 그 재료와 장식에 있어서 화려하고 다양각색이다. 뾰족한 원추형 끝에는 베일을 드리우기도 하고 낫쇠줄로 받쳐 부자연스럽게 세워 올리기도 했다. 특히 예낭은 고딕의 상승선의 강조이며 탈속적인 감정을 수반하여 좀더 하늘에 가까이 가고 싶은 소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높이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기도 했다.

광택이 있는 피혁을 고래의 뼈로 보강하여 뾰족하게 끝을 위로 올린 신발의 유행은 오래 지속되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진주, 사파이어 등 보석류의 호화스러움으로 복식의 화려함을 더했다.

고딕복식의 인체를 강조하는 경향 즉 여성복의 실루엣 강조, 남성복의 짧아지는 의복형태를 잘 보여주는 타피스트리이다. 이렇게 고딕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복장에서 신체의 선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게 출현했는데 여성보다도 남성의 복장에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십자군원정을 계기로 기능성이 중시되어 신체에 꼭맞는 복장이 애호되기

67) 服部照子, 전게서, p.137.

시작했다.⁶⁸⁾

19세기의 역사가의 미슈레가 중세의 복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자손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분격하고 공포조차 느꼈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고 환상적인 장식을 두려운 기색조차 없이 몸에 걸치고 있는 이 기괴한 衣裳은 그들의 노함을 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아하게 장식을 세우고 뒤로 자락을 질질 끌리게 한 여자같이 우아한 차림의 남자들의 모습이나 보헤미안風の 胴衣에 꼭 붙는 타이즈 바지를 입고 袖口에는 바닥까지 닿을 듯한 장식을 붙인 남자들의 모습, 여성들은 머리에 남자들은 발 끝에 뿔을 자라게 하여 신발 끝은 뿔과 같고 부리와 같이 뾰족해지며 전갈의 꼬리 같이 구부러져 있다. 또한 여자들의 모습은 공포심을 느낄만 한데, 앞가슴을 벌리고, 머리에는 남자 보다도 훨씬 높은 원추형 모자위에 당당히 뿔을 올려놓고 과시하듯이 돌아다녀 문 입구에서는 우선 머리부터 스그려야만 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공포스러운 미소를 흘리며, 살찐 몸으로 죄안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과연 여성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지…….”⁶⁹⁾

의복은 강력한 제왕과 왕족의 집진적인 몰락이 후에는 새로이 부상하는 국가들의 왕과 그의 관료들의 주변에서 변화를 계속하게 되었다. 또한 의복은 유럽의 경제적 제정비와 예수적, 도덕적 재기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세력의 재편성 과정에서 통일성과 보편성이라는 새로운 특징을 요구받게 되었다.⁷⁰⁾

〈그림 14〉는 1425~1450년경의 타피스트리로 인물들은 크고 의복의 細部가 확실히 고증되는 것이다. 작은강 옆의 물레방아간의 앞에는 아낙네가 실패를 가지고 서 있다. 복장은 긴소매 커프스가



〈그림 14〉 매사냥의 부분

(ヨーロッパの生活美術と服飾文化, p.18.)

있는 무늬없는 꼬뜨(cotte)로 허리는 꼭 맞으며, 플레어 스커트를 걸어 올리고 있어 꼬뜨의 안감과 단에 이음선이 있는 속옷이 보인다. 당시 여성의 슈미즈는 보통 린넨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짜여진 무늬 모양이 있다. 이 시대는 신분의 상하를 불문하고 플레에 진 스커트의 옷자락을 접어서 허리띠에 끼워 입는 장식방법이 높게 평가되었다. 꼬뜨의 네크라인은 보통 많이 파였는데 위에 겹쳐진 wool이나 麻로 된 깃장식이 목둘레를 덮고 있으며 금색 편으로 고정하였다. 서민은 우뿔랑드 같은 넓은 옷을 위에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옷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스타킹은 모직 붙이고 양말 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터로 고정했다고 생각된다. 신발은 이 시기에는 뒷꿈치가 낮은 것으로 아마도 革製の 끈을 묶고 있는 듯 하다.

또한 흰색 린넨의 쓰개는 관자노리 근처에서 걸어올린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전부 덮는 것인데 이것은 기혼부인임을 나타내며, 머리를 그대로 보이

68) 青木英夫, 西洋男子服流行史, 源流社: 東京, 1994, p.57.

69) 服部照子, 전계서, p.138.

70) BOUCHER, 전계서, p.81.

는 것은 미혼자나 소녀의 특권이였다.⁷¹⁾

〈그림 15〉는 농가 주부의 과도한 노동을 나타낸 풍자화이다. 어린아기를 布에 감싸서 목에 묶고 새를 몇마리 넣은 바구니를 등에 지고, 실 뽑는 막대기로 실을 뽑으면서 시장으로 급히 서둘러가는 여자의 모습에 웃음으로는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무연가가 묘사되어 있다.

‘나는 집안일을 많이 떠 맡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타위는 하잘 것 없다’라는 귀절이 짜넣어져 있는데 이 같은 리본 장식은 스위스의 바젤(Basel) 등의 타피스트리에서도 많이 보여진다. 이것도 1450~1470년경, 바젤 혹은 그 부근에서 짜여진 것이다.⁷²⁾



〈그림 15〉 시장으로 서둘러 가는 여자
(ヨーロッパの生活美術と服飾文化, p.44.)

이 타피스트리에서도 배경이 되는 바탕에 양식화된 무늬가 보이는데 동양적인 모티프가 유럽인의 취향에 적응되던 14세기경에 이탈리아는 동양의 영향을 초기에 단절시켜 일정한 양식으로 된 꽃무늬 장식에 점차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동물의 주제는 체계적으로 분리, 제거해버렸다. 따라서 산재되어있는 꽃무늬장식이 유행되었는데 일정한 양식의 꽃무늬와 덩굴손 무늬에 의해 형성되는 폭선무늬는 동양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15세기부터 이탈리아의 제직공들에 의해 독특한 꽃무늬 모티브로 확대되어 폭넓은 물결무늬 사이에 고정된 큰 석류무늬와 영경귀무늬로 돌음무늬 하였다.⁷³⁾ 인간의 생활과 깊은 관련을 지닌 장식 문양으로 널리 이용되는 이 식물 모티브는 시대, 지역에 의해서 때로는 자연적으로, 때론 추상적으로 표현되며 더욱이 상징적 혹은 寓意的 의미를 가지고 승배되는 것도 보인다.⁷⁴⁾

4. 장식공예품

古代 로마사회의 궁정 내지 귀족사회의 호화, 사치스런 취미는 한편으로는 그대로 비잔틴사회의 상류계급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 교회에 이어 내려져 귀금속, 보석 등의 소재를 이용한 예술이 애호되게 되었다. 다만, 그리스도교도에 있어서는 그것은 단순한 사치스러운 취미가 아니라 그 화려한 아름다운 색채의 빛을 神의 영광의 상징으로서 보았다는 것이다.

이들 중 목걸이, 귀걸이 등의 세속적인 장식품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교회관계 용구이다. 십자가 가슴장식, 聖杯, 聖盃 장정판, 이콘, 십자가, 祭壇 등 온갖 것이 귀중한 소재로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소재는 보통 몇가지 종류가 함께 사용되어졌으며, 어느 것이든 번잡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소재의 아름다움을 솔직하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발휘시켰다.

〈그림 16〉은 7세기초 비잔틴 시대의 은쟁반으로 키프로스 섬에서 출토된 ‘사자를 넘어 뜨린 다윗’인데 얇게 두들겨 쳐낸 浮彫의 세부나 윤곽을 섬세한 線刻이나 點刻으로 나타내어 사자의 갈기를 잡고 곤봉으로 치려고 하는 다윗의 동작, 의복의 주름 등을 유연하고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71) 服部照子, 전계서, p.138.

72) 상계서, p.143.

73) BOUCHER, 전계서, p.98.

74) 若宮信晴, 전계서, p.8.



〈그림 16〉 사자를 넘어뜨린 다윗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중세, p.102.)



〈그림 17〉 동방박사 메르키오가 자수된 제단포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중세, p.46.)

러한 은세공품은 7세기초 헤라클리우스 황제 시대의 宮中工房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中期 비잔틴 미술의 고전양식 부흥에 의해 새롭게 활력을 얻은 고대 전통이 잘 보존되어 보여지고 있다.⁷⁵⁾

로마의 영향을 받은 衣服은 형태상으로 단순하며 느슨하고 흐르는 듯한 형태이다. 반소매길이의 짧은 튜닉위에 입는 오른쪽 어깨에서 고정되어진 크라미스(Chlamy)는 가장자리 장식선이 있고, 흐르는 듯한 치마단 부분에는 무늬있는 선장식이 되어 있다. 허리부분에는 넝쿨의 끝처럼 말린 모양의 선장식이 되어진 넓은 띠 장식이 있으며, 머리스타일은 고대 로마의 머리스타일이 연상되는 약간의 꺾이 있는 짧은 스타일이다.

〈그림 17〉은 1300년경 도이칠란드의 祭壇布의 부분으로 마포에 명주실로 자수된 것인데 이 제단포는 밤베르크 대성당 서쪽 제실의 베드로 대제단을 장식하던 것으로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가 중앙에 위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제단포의 전체 구성을 보면 우선 네 개의 메

달형 속을 세 동방박사의 기마상과 성모상이 차지하고 있고 그 사이 사이의 사다리꼴 속에 위로는 사도와 천사, 아래에는 예언자와 기증자, 그리고 좌우의 끝에는 기사 복장을 한 성직자 한 사람씩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네 귀퉁이에 각각 밤베르크市の 紋章이 아플리케로 꿰매어져 있다. 원안에는 세 동방박사 중 맨앞에 자리잡고 있는 메르키오르가, 위에는 베드로와 바울, 아래에는 다비드와 엘리야의 모습이 정성들여 수놓아져 있으며, 원둘레에는 ‘모세의 전례에 갈대 배에 태워 보낼 아기를 정하다’라는 글귀가 있다.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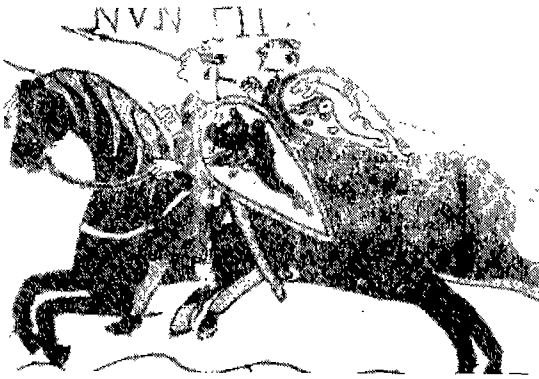
메르키오르의 복장을 살펴보면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앞중심에서 고정시킨 맨틀을 어깨에 두르고 있으며 둥근 니크라인의 꼬뜨 위에는 버클의 모습이 뚜렷한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13세기는 유럽중세봉건 사회의 育成期이며 중세문화가 발전한 시대이다. 의복의 온갖면에서의 발달은 중세의 엄격한 종교상의 금욕주의와 신분제도에 기초하고 있어 아주 단순한 구성을 보이고

75)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전계서, p.147.

76) 상계서, p.128.

있다. 前 세기의 견크레이프 등을 이용한 드레이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던 옷들이 13세기가 되자 모직의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것으로 변했다. 이것은 유럽인과 회교도의 싸움으로 급격히 絹의 수입이 감소하고 대신 프랑드르지방과 상파뉴지방의 직물산업이 발달하여 모직물의 공급을 증대시킨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 또다른 이유는 봉건적 封土가 발달한 13세기에는 걸거나 말로 이동해야 하는데 적당한 여행복의 가능성이 고려된 까닭이다.⁷⁷⁾



〈그림 18〉 윌리엄의 두 使者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중세, p.28.)

〈그림 18〉은 1080년경 바이유 司敎의 자수벽걸이로 로마네스크 시대에 제작된 귀중한 벽걸이 중의 하나인데 대성당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麻布 바탕위에 여덟가지의 털실로 짜면서 노르만인의 잉글랜드 정복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있는 긴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말위의 두사람은 정복자 윌리엄의 두使者라고 할 수 있는데 두필의 말은 靑色과 赤色의 색채대비에 의해 뚜렷이 눈에 띄게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살리고 있다.⁷⁸⁾ 왕과 귀족들은 궁전에 있을 때 길고 여유있는 의상을

입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입과 전투가 끊이지 않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승배하기 쉽고 기동성이 있는 짧은 옷을 입었다.

11세기말 봉건 제도하에서 군생활의 새로운 점은 기사였는데 그들은 귀족계급에서 모병되었고 12세기중엽에 이르러 독특한 표식으로 신분을 나타내게 되었다. 시민복이었던 블리오(Bliaud)위에 기사들은 마직이나 질긴 가죽으로 만들어진 브로이스(Broigne), 뿔이나 금속으로 보강된 저킨(Jerkin)을 입었다. 무장이 안된 브로이스는 갬버슨(Gamberson)이나 허백(Hauberk)이라 불리었는데 이 옷은 앞뒤에 술릿이 있어 말타기 편하게 되어있으며 옷의 두 자락은 허백지에서 끈으로 묶거나 버클로 매어서 마치 호신용 치마같은 역할을 하였다.⁷⁹⁾

12세기 기사들의 문화와 더불어 시작된 문장은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는데 단순한 美的인 문양으로서의 사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방패 위에 그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문장은 가문과 소유하는 영토를 나타내었으므로 권력을 상징하는 표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십자군의 부름에 응하여 각지에서 기사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교를 위해 聖戰에 참가한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 무장한 위에까지 표시하게 되었다.⁸⁰⁾

십자군 원정에서 비롯된 이 문장장식은 13, 14세기를 통해 급격히 발전하였는데 중세 귀족과 기사들 사이에서는 방패, 갑옷, 투구, 군복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의복에까지 사용되면서 소속된 집단을 상징하는 표시가 되기도 했다.

문장과 관련있는 문양이 들어간 방패가 나타난 것은 1170년 이후이며 12세기 말부터 방패 표면의 돌기몰이 없어지자 문장의 표현이 더욱 자유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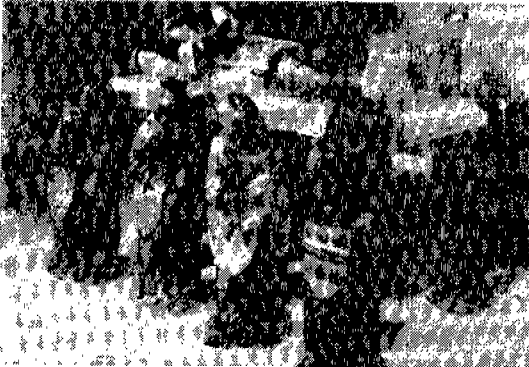
77) 村上憲可, 전계서, p. 73.

78) GRAND COLLECTION OF ART, 전계서, P. 122.

79) BOUCHER, 전계서, p.80.

80) 菅原珠子, 西洋の文章と服飾, 服飾美學 第5號, p.21.

졌다.⁸¹⁾ 문장이 방패에 표시된 것을 암즈(Arms)라고 칭하였는데 그 형태는 삼각형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원형, 타원형, 마름모형 등이며 표면에는 일정한 物象이 표현되어 그 物象의 형태와 위치, 색배합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가 보여진다. 색배합은 금색, 은색, 적색, 청색, 녹색, 검정색이 중심이었다.⁸²⁾ 문장에 사용된 문양으로는 사자, 독수리 등이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이 밖에도 나무, 잎사귀, 꽃, 물고기, 마름모꼴, 작은 고리, 원 무늬 등 다양하여 원래 단순했던 모양과 색이 점점 복잡해졌다.



〈그림 19〉 필립 pots(Philippe Pot) 무덤
(THE ATLAS OF MEDIEVAL MAN, p. 213.)

〈그림 19〉는 앙투와 르 무아뚜리어(Antoine Le Moiturier)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필립 pots(Philippe Pot) 무덤의 목조상으로 14세기 중엽 흑사병이라는 재앙으로 종교계와 예술계에 팽배된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보여주는 예이다.⁸³⁾ 무장한 기사와 주검은 두손을 기도하듯 모으고 있으며 발근처에는 羊인 듯한 동물상이 있고 이 시신을 메고있는 8명의 사람은 바닥까지 끌리는 긴 옷 위에 케이프달린 후드를 깊게 쓰고 있고 어깨에는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방패모양의 것을 메고 있는

데 다양한 문장을 볼 수 있다.

후드는 12세기말 망토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머리장식으로 짧은 네크 케이프(Neck-cape)와 함께 사용되었다. 14세기에는 후드의 뒤 또는 한쪽 측면에 긴 밴드가 추가되었고 이것은 무장침입자들에게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1399년 착용이 금지되었고 장례식에만 사용하게 되었다.⁸⁴⁾

V. 결 론

유럽의 중세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시기,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며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 시기, 봉건제도와 농촌경제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도시민의 사회적 세력이 증대하였던 시기로서 미술사적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교 미술과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미술, 고딕 미술이 복식문화에 뿌리를 내린 시대라 볼 수 있다.

또한 복식문화는 십자군전쟁으로 인한 입체구성과 신분계급에 따른 복식의 규제와 문양이나 색채도 상징적인 면이 있었다.

또, 중세의 취미와 장식성은 조형예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양식” 이상으로 취미이며 시대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술작품에서도 풍속적인면에서의 강한 반영을 이 시대의 복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건축물에서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과 벽화에 보이는 그리스도교 미술은 자연계의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황스러운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예술의 목적인 것이었다. 즉, 감각적 수단을 통하여 영적 세계의 인식에 유용한 것이다. 종교적, 영적인 기적에 대한 것과 성서의 역할과 장식적 기능을 겸비한 기념비적인 예술이었다.

81) A.C. Fox-Davies, A Complete Guide to Heraldry, Bonanza : New York, p.145.

82) 若官信晴, 전계서, p.285.

83) Colin Platt, The Atlas Of Medieval Man, st. Martin's press : NY, 1979, p.213.

84) BOUCHER, 전계서, p.87.

2. 회화에서는 중세유럽의 고유한 아름다운 창조성에 논거한 것이었다. “동방박사의 예배”라는 양피지위에 그려진 그림, “Charles 6세의 戴冠”은 건축의 모티브 가장자리 장식, 기하학적인 무늬, 백합무늬 등 뛰어난 솜씨였고 유리공과 건축공들의 공예적인 수법과 공인들의 인내심과 “농사일의 묘사”,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의 장면 등 희생적인 묘사들이다.

3. 타피스트리는 14세기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 발달했는데 그 모티브는 종교적, 역사적題材에 의한 것, 일각수, 귀부인, 화초, 새 등 동물이 이용되었다. 타피스트리는 예술과 취미, 장식적·기능적 직물, 벽걸이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법과 인내심과 강한 작업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타피스트리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였고 최고 선물의 품목으로 뽑혔고 왕이나 귀족들은 주문제작을 하기도 하였으며 모티브의 주제가 생활과 깊이 관련된 시리즈로 하기도 하였다.

4. 장식공예품은 궁정 내지 귀족사회의 호화, 사치스런 취미와 그리스도교 교회의 귀금속, 보석 등의 소재를 이용한 예술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교도에 있어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의 빛을 神의 영광의 상징으로 보았다. 또 교회관계의 용구이기도 하다. 공예품에는 금속공예, 목공예, 직물공예 등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생활미술품에 나타난 복식에서 중세유럽복식의 특징인 입체구성, 문장과 파티칼라, 군복과 방패, 침두형인 고딕스타일, 종교적인 상징 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즉 남성은 꼭끼는 뷔르뵘웨어 호즈, 튜닉, 앞터진 꼬파르디를, 여성은 상체가 꼭끼고 스커트가 풍성한 꼬뜨와 길게 끌리는 꼬파르디를 입으며, 풍성한 망토와 케이프 달린 후드, 터번형 모자, 코이프, 예낭, 베일 등 여러 가지에서 중세유럽복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알 수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도 엿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경옥, 서양복식사, 양서각 : 서울, 1996.
- 김문경,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 미진사 : 서울, 1983.
- 김용진, 서울고예사, 학문사 : 서울, 1976.
- 데이비드 탈보트라이스, 비잔틴 세계의 미술, 미진사 : 서울, 1989.
- 배만실, 장식미술사, 지문당 : 서울, 1994.
- 성지숙, 로마네스크시대 복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 서울, 1992.
- 우메다 가즈로, 이미지로 본 서양미술사, 1989.
- 유재길 역, 서양미술사, 조형사 : 서울, 1994.
- 윤장섭, 서양건축사, 동명사 : 서울, 1996.
- 이석우, 신용철, 세계의 역사와 문화, 탐구당 : 서울, 1986.
- 이영범, 유공조, 서양문화사, 양서원 : 서울, 1991.
- 이영환, 서양미술사, 박영사 : 서울, 1985.
- 장문호, 서양미술사, 형설출판사 : 서울, 1997.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 서울, 1987.
- 최영옥, 서양문장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 중세 서양문장과 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18, no. 1, 1994.
- 최종고, 법과 미술, 시공사 : 서울, 1995.
- 차하순, 서양사 총론, 탐구당 : 서울, 1978.
- 프레데리크 들루슈 편, 윤승준역, 새유럽의 역사, 도서출판 까치 : 서울, 1995.
- 菅原珠子, 西洋の文章と服飾, 服飾美學 第5號.
- 服部照子, ヨーロッパの生活美術と服飾文化Ⅰ, 源流社 : 東京, 1986.
- 世界美術全集 28-西洋(4) 中世Ⅰ-, 角川書店 : 東京, 1964.
- 世界美術全集 29-西洋(4) 中世Ⅱ-, 角川書店 : 東京, 1964.
- 若宮信晴, 西洋裝飾文様の歴史, 文化出版局 : 東京, 1980.

- 原田二郎, デザイナーのための西洋服装史, 源流社: 東京, 1976.
- 青木英夫, 西洋男子服流行史, 源流社: 東京, 1994.
- A.C. Fox-Davies, A Complete Guide to Heraldry, Bonanza: New York, 1976.
-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NY, 1987.
- Colin Platt, The Atlas Of Medieval Man, st. Martin's press: NY, 1979.
-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中世美術—, 東亞出版社: 서울, 1988.
- GEORGES DUBY, 서기 1000년과 서기 2000년의 그 두려움의 흔적들, 동문선: 서울, 1997.
- Julien Coffinet, Maurice Pianzoia, タピスリ—, 美術出版社: 東京, 1975.

ABSTRACT

The Study on Living Art and Costumes Culture of The Middle-Age Europe

Medieval European practical art and style of costume is studied through referring to the literatures. The type of clothing that was seen on tapestries, arts and crafts, paintings and wall paintings and appeared in the architecture such as church. There were symbolic aspects of color, motifs at this period and some restraints for clothing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 It was a period that draped garments due to the War of Crusades is appeared. Because the medieval taste and decorative character is not only 'formative art' but also the taste beyond 'mode' and atmosphere of that times, it could be seen the strong reflection of customs in the clothing of that times

which is shown in works of art.

1) The purpose of Christian art which was found in mosaics, stained glasses, wall paintings and statues of architecture was not just the revival of natural phenomena, but visualization of sacred and invisible things. It was valuable to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through the sense organ. It was a monumental art that was combined with decorative function and role of the Bible. It revealed what was about the religious, spiritual miracle.

2) In the medieval European painting, characteristic and beautiful creativity was the basis of an argument. Both "Worship of Eastern" that is painted on a parchment and "Coronation of Charles VI" were described decoration motifs on the edge of buildings, geometric patterns and others with outstanding skill. There were precise technologic skill of architect and glassmen, and lots of patience of craftsmen. "The Labour of the Months" and the scene of "A Trial at the Court" is also described elaborately.

3) Tapestry was developed in France, Germany, Swiss at the 14th century. Religious and historical themes, unicorn, lady, bird, flowering plants and others were major motifs. It was very important as decorative wall coverings and as practical door, arch, and bed hangings. It was made through patient, hard work with simple technique, and it was considered as an art for practical use. Tapestry was what everyone wish to have. It is reckoned for the item of the best gift. The royalty and nobility ordered and used custom-made tapestries. Sometimes, the subject of motifs consisted of series which were deeply

related to living.

4) Decorative arts and crafts was the art that used materials such as precious metals, jewels and others, and that accorded with the luxurious and gorgeous taste of the royalty and nobility. Christian considered splendid and beautiful color of light as a symbol of glory.

They used also for church appliances. There were metal crafts, wood crafts, textile crafts and others.

As was stated above, the costume appeared on the arts and crafts for living revealed the process of changes saw how the politic, economic and social organizations were developed.